

2017년 8월 11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트럼프 발언 이후 하락폭 확대 트럼프, “화염과 분노는 충분히 강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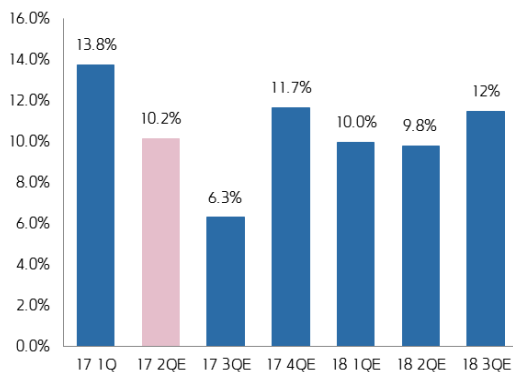
북미 마찰 빌미로 차익실현 확대

유럽 증시는 도이체방크(-3.09%), 코메르츠방크(-1.71%) 등 연초 대비 상승폭이 컸던 금융주가 하락 주도. 미 증시는 북미 마찰을 빌미로 ‘버블 논란’이 있던 ‘FAANG’ 주식을 비롯한 IT와 바이오주가 하락 주도. 더불어 실적을 발표한 소매판매 업종이 급락하고 국제유가 또한 OPEC 산유량 증가 여파로 하락하며 투자심리 위축. 한편, 장 후반 트럼프가 “화염과 분노는 충분히 강하지 않다” 라며 자극적인 발언 이후 하락폭 확대(다우 -0.93%, 나스닥 -2.13%, S&P500 -1.45%, 러셀2000 -1.75%)

글로벌 증시가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음. 북미간의 마찰이 격화되며 투자심리가 악화된 가운데 매물이 쏟아진 결과. 그렇다면 이번 흐름이 과연 북미간의 마찰에 의한 결과일까를 살펴보면 하나의 빌미였을 뿐 주된 원인은 아니라는 판단. 실제 이번 사태가 확산된 시기는 지난 8일 트럼프의 강경한 발언 이후 발생. 그러나 당시 미 증시는 로버트 실러 교수가 “미 증시가 버블로 인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주장한 이후 상승폭을 축소하고 있던 시각이었음. 이후 트럼프의 발언에 의해 낙폭이 좀더 확대되었을 뿐 북미간의 마찰이 하락의 주요 요인은 아님.

최근 글로벌 증시의 특징을 보면 한국과 미국에서는 그 동안 지수 상승을 주도하던 IT 업종이 하락 주도. 중국에서도 상승을 주도했던 철강, 비철금속 업종이 하락 주도 하는 모습. 독일과 영국 등도 마찬가지로 양상. 이를 감안하면 최근 글로벌 증시 하락은 북미간의 문제 보다는 버블논란 속에 차익실현 욕구가 강화되며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 지난 4일 미국 시장 조사업체 팩트셋이 2분기 S&P500 기업이익 추정치에 대해 전년 대비 10.2%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 더 나아가 3분기(+6.3%)에 잠시 주춤하지만 이익 전망치가 여전히 견고한 상태라고 발표. 물론 9일 트럼프가 “화염과 분노가 충분히 강하지 않았다” 라고 경고하는 등 여전히 북미간의 마찰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음. 한편, 트럼프가 “북한과의 대화는 항상 고려할 것이다” 라고도 언급했기에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하는 시점.

S&P500 분기별 Bottom-UP EPS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팩트셋,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	Close	D-1	지수종류 (%)	Close	D-1
KOSPI	2,359.47	-0.38	홍콩항셱	27,444.00	-1.13
KOSDAQ	640.04	-0.44	영국	7,389.94	-1.44
DOW	21,844.01	-0.93	독일	12,014.30	-1.15
NASDAQ	6,216.87	-2.13	프랑스	5,115.23	-0.59
S&P 500	2,438.21	-1.45	스페인	10,450.00	-1.38
상하이종합	3,261.75	-0.42	그리스	833.78	+0.02
일본	19,729.74	-0.05	이탈리아	21,681.61	-0.7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외로 퍼질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FAANG 기업 하락 주도

연초 대비 30~40% 내외 상승했던 페이스북(-2.21%), 애플(-3.22%), 아마존(-2.56%), 넷플릭스(-3.78%), 알파벳(-1.75%) 등 'FAANG' 기업은 차익실현 욕구가 강화되며 하락했다. 더불어 마이크로소프트(-3.81%), 브로드컴(-3.40%), AMAT(-4.06%), 램리서치(-3.71%) 등 그 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반도체 관련 업종 또한 부진했다. 한편, 셀진(-3.84%), 암젠(-2.56%), 바이오젠(-2.59%), 길리어드사이언스(-1.62%) 등도 차익실현 매물 출회로 하락 했다. 엑손모빌(-0.59%), 코노코필립스(-1.49%), 데본에너지(-1.00%)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부진했다.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백화점 업체 메이시스(-10.25%)와 콜스(-5.80%)는 향후 전망 하향 조정 및 주요 판매수치가 다시 감소할 것이라고 언급한 이후 하락했다. 갭(-3.03%), L브랜드(-3.33%), 타겟(-3.85%) 등 소매 판매 업종도 동반 하락했다. 연초 대비 60% 넘게 상승했던 N비디아(-4.28%)는 장중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했는데 장 마감 후 양호한 실적 발표 후 3% 넘게 상승하기도 했으나 재차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4% 넘게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요 ETF_소매, SNS 업체 ETF 부진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1.5%	대형 가치주 ETF	-1.2%
에너지섹터 ETF	-1.9%	중형 가치주 ETF	-1.3%
소매업체 ETF	-3.1%	소형 가치주 ETF	-1.5%
금융섹터 ETF	-1.8%	배당주 ETF	-0.9%
기술섹터 ETF	-2.0%	변동성 ETF	+13.6%
소셜 미디어업체 ETF	-3.5%	대형 성장주 ETF	-1.7%
인터넷업체 ETF	-2.7%	중형 성장주 ETF	-1.8%
리츠업체 ETF	-0.9%	소형 성장주 ETF	-2.0%
주택건설업체 ETF	-2.1%	신흥국 고배당 ETF	-2.0%
바이오섹터 ETF	-2.8%	신흥국 저변동성 ETF	-1.6%
헬스케어 ETF	-1.2%	하이일드 ETF	-0.7%
곡물 ETF	-2.2%	물가연동채 ETF	+0.3%
반도체 ETF	-2.7%	Long/short ETF	+2.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72.82	-1.34%	-1.86%	-1.33%
소재	335.48	-1.22%	-1.43%	-2.64%
산업재	578.27	-1.34%	-1.49%	-2.11%
경기소비재	710.99	-1.52%	-1.82%	-0.63%
필수소비재	566.21	-0.47%	-0.18%	+1.11%
헬스케어	905.32	-1.28%	-1.66%	-1.59%
금융	411.70	-1.76%	-1.47%	-0.80%
IT	972.66	-2.18%	-1.44%	+0.03%
통신	159.03	-0.43%	-0.80%	+6.89%
유틸리티	273.76	+0.25%	-0.01%	+4.45%
부동산	198.45	-0.92%	-1.07%	+0.8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IT업종 동향 주목

MSCI 한국 지수는 2.46% MSCI 신흥 지수도 2.37% 하락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2,526계약) 여파로 4.65pt 하락한 303.95pt로 마감했다. KOSPI로 환산하면 2,323pt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44.70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가 북미 마찰 여파로 매물이 쏟아지며 한때 2,340pt를 하회하기도 했으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2,359.47pt로 마감했다. 그러나 미 증시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지 못하고 낙폭을 확대했다. 연초 대비 상승폭이 컸던 IT 업종 위주로 매물이 쏟아지며 하락하였다. 특히 장 막판 트럼프가 “화염과 분노는 강하게 말한 것도 아니다” 라고 경고하자 하락폭이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오늘 한국 증시는 장 초반 Fwd PBR 1배인 2,339pt를 하회해서 출발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하락이 단순히 북미간의 마찰에 따른 지정학적 요인이라기 보다는 이를 빌미로 차익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 대비 상승폭이 컸던 IT 업종에 대한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 오늘 주식시장의 변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 증시 하락폭 확대 요인이었던 트럼프의 발언 중 북한과의 대화는 열려 있다는 내용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주말을 앞두고 있어 이러한 발언이 북미간의 마찰을 완화시킬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오늘 한국 증시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제유가가 하락한 점, N비디이가 장 마감 후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차익실현 매물로 4% 하락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반등 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물가지수 하락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 전년 대비로는 1.9%로 지난달(2.0%)보다 0.1%p 하락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또한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 전년 대비로도 지난달 보다 0.1%p 하락한 1.8%로 발표되었다.

미국의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24만 1천건) 보다 소폭 증가한 24만 4천 건으로 발표되었다. 다만 4주 평균은 지난주(24만 2천건) 보다 감소한 24만 1천 건으로 발표되었다..

상품 및 FX시장 동향

곡물가격 급락

국제유가는 OPEC 원유시장 보고서에서 OPEC 국가들의 산유량이 전월 대비 하루 17만 2,600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하자 하락했다. 이러한 증가는 리비아,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의 생산 증가에 따른 결과다. 한편, OPEC은 올해 수요는 하루 10만 배럴 증가세를 더해 137만 배럴로 발표했으면 2018년에는 이보다 128만 배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달러는 북미간의 마찰이 확산되자 엔화가 달러대비 강세를 보이자 여타 환율에 대해 소폭 하락했다. 특히 생산자물가지수가 예상을 하회한 전월 대비 0.1% 하락한 점도 약세 요인 중 하나였다. 다만 장중 더들리 뉴욕연은 총재가 “달러 하락과 고용시장 개선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자 강세로 전환하기도 했다. 이 후 장 막판 트럼프가 “화염과 분노는 충분히 강하지 않았다” 라고 북미 마찰을 더욱 확대하자 엔화 강세폭이 커지자 재차 약세 전환하는 등 등락이 이어졌다. 엔화는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되며 109엔 초반까지 하락하는 등 달러대비 강세폭을 확대했으며 스위스 프랑 또한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경제지표 부진 여파로 하락했다. 또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확산 되며 국채가격이 상승하자 이와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다만 테슬라가 15억 달러 채권 발행을 발표하자 하락세는 제한 되었다.

금은 북미간의 마찰이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상승 했다. 구리를 비롯한 일부 비철금속은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했다. 다만 여전히 알루미늄은 중국의 공급감소 기대에 힘입어 상승했다. 곡물은 USDA(미 농무부)가 러시아의 기록적인 생산량 때문에 글로벌 밀 생산량을 상향 조정 한 이후 급락했다. 더불어 대두에 대해서도 예어커 당 생산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분석도 발표되며 하락세를 더욱 부추겼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48.59	-1.96	-0.90	Dollar Index	93.400	-0.16	+0.60
브렌트유	51.90	-1.52	-0.21	EUR/USD	1.1772	+0.11	-0.83
금	1,290.10	+0.84	+1.23	USD/JPY	109.2	-0.79	-0.77
은	17.065	+1.20	+2.62	GBP/USD	1.2977	-0.21	-1.23
알루미늄	2,037.00	+0.47	+6.62	USD/CHF	0.9626	-0.11	-0.62
전기동	6,423.00	-0.50	+0.80	AUD/USD	0.7875	-0.16	-0.94
아연	6,176.39	+0.22	+4.48	USD/CAD	1.2744	+0.35	+1.26
옥수수	371.00	-3.95	-1.79	USD/BRL	3.176	+0.64	+1.97
밀	468.75	-3.70	-3.35	USD/CNH	6.6667	-0.38	-0.93
대두	940.25	-3.39	-2.11	USD/KRW	1142	+0.60	+1.17
커피	142.00	-2.84	-1.25	USD/KRW NDF1M	1144.7	+0.50	+1.37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198	-5.01	-2.37	스페인	1.446	+3.10	+0.90
한국	2.315	-1.70	+6.30	포르투갈	2.833	+2.30	+1.20
일본	0.063	+0.50	-0.60	그리스	5.467	+1.30	+0.50
독일	0.415	-1.30	-3.80	이탈리아	2.027	+2.20	+4.50